

서법으로서의 명사형 어미에 대한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

황현동**

초록 이 글에서는 보절에서 대립하는 명사형 어미 '-음'과 '-기'가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서법 요소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최근 명사형 어미는 현실성 위상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처리되어 '-음'은 현실을, '-기'는 비현실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대부분의 논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양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서의 현실성에 대한 판단으로는 명사형 어미가 대립하는 모습의 일부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접근으로 이 글에서는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을 택하고자 하였다. 가능세계의미론에서 양상은 실제일 필요 없는 상황에 기반하여 말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 정도로 정의되는데 서법은 이와 같은 양상 의미가 문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절에서의 서법은 직설법과 가정법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은 단언과 비단언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된다. 단언은 새로운 명제를 추가하여 맥락으로 주어진 가능세계들을 해당 발화에 맞게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설법과 가정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직설법의 경우 어떤 주체가 참임을 보장하는 보절 명제가 모절에 결합한 경우 선택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절의 명제는 문장 하위층위의 맥락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가정법은 화자가 보절이 거짓인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언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음'과 '-기'의 선택을 각각 직설법과 가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현실성 위상 범주를 볼 때에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예들도 설명할 수 있게 됨을 보였다. 특히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에서는 모절 서술어의 의미,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서법 의미가 합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였다.

주제어 명사형 어미, 서법, 직설법, 가정법, 현실성 위상, 가능세계의미론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이 글은 보절에서의 명사형 어미 ‘-음’과 ‘-기’의 대립을 가능세계의미론(possible worlds semantics)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그간 한국어의 양상(modality)이나 서법(mood)을 다룬 논의에서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² 그러나 본고에서는 서법에 대한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이 보절 서술어가 어떤 명사형 어미를 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서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보절 서술어에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의 분포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설명의 범위를 보절에 한정하는 것은 보절에서 명사형 어미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 이들의 의미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³ 본고는 명사형 어미에 대한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의

-
- 1 양상과 서법에 대한 형식의미론적 접근에서는 가능세계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들은 모두 형식의미론적 관점에 기반한 것들이다. 그런데 ‘형식의미론적 관점’이 아니라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이라고 칭한 것은, 본고에서 형식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양상과 서법을 설명하는 것의 유용성을 보이려고 했다. 어떤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여러 이론적 배경을 활용하는 것은 정확한 언어 현실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형식 언어에 익숙지 않으면 관련 논의들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시 방법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을 취한 논의가 아닌 경우, ‘modality’의 번역어로 ‘양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을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논의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상’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였음을 밝혀 둔다.
 - 3 보절에서 명사형 어미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의 유용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보절이라는 환경에서의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살피고자 하였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환경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서법의 대립이 그간 이해되어 온 것과 같이 늘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굳어져 쓰이는 표현들에도 각 서법의 의미가 관여하는 듯하다.

가능성을 보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환경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최근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 ‘-음’과 ‘-기’는 현실성 위상(reality status)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음’은 현실(realis), ‘-기’는 비현실(irrealis)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라고 설명된다.⁴ 이들 논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양상의 하위 범주로서 현실성 위상을 설명하며 명사형 어미의 대립에 이를 적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음’이 결합한 보절은 화자가 현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것, ‘-기’는 현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 그러나 (1)의 예는 이와 같이 설명되기 어려워 보인다.

(1) 가. 지수는 외계인이 존재함을 믿는다.

나.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아까 보니 너 밥 같이 먹기 싫어하더라.

(1가)에서 ‘외계인이 존재함’을 화자가 현실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믿음의 주체인 ‘지수’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1가)의 화자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4 ‘realis’와 ‘irrealis’에 대해서는 이들이 서법에 속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각에 ‘서실법, 서상법’이라는 번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323-359; 임동훈(2009),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pp. 55-81;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pp. 211-249]. 본고에서도 명사형 어미 ‘-음, -기’가 서법 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realis’와 ‘irrealis’의 대립이 서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realis’와 ‘irrealis’의 의미를 강조한 ‘현실, 비현실’이라는 번역어를 취했음을 밝혀 둔다.

5 물론 기존의 모든 논의가 명사형 어미를 현실성 위상을 나타내는 요소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의 많은 논의들이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고 있고, 그 이전의 논의들도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의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가)는 화자가 보절에 표현된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나)의 경우 청자가 밥을 같이 먹고 있던 상황을 싫어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현실에 실재하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발화임을 알 수 있다. 화자가 보절을 비현실로 판단할 때 ‘-기’가 선택된다고 본다면 (1나)와 같은 예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보절에서의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현실성 위상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가능세계의미론을 바탕으로 한 서법에 대한 논의를 도입해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실성 위상 범주 요소 대신 가능세계의 개념을 도입한 서법 요소로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설명할 때, 명사형 어미의 여러 쓰임을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능세계 개념을 바탕으로 한 양상과 서법 논의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보다는 직설법(indicative)과 가정법(subjunctive)의 대립을 바탕으로 서법에 대해 설명한다. 유럽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나,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이 서법 요소 간의 대립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따라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에 대한 논의를 ‘-음’과 ‘-기’에 적용해 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앞서 제기했던 현실성 위상 범주로서 명사형 어미를 처리하는 것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명사형 어미를 현실성 위상 범주로 파악하는 기존 논의들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성 위상 범주로서 명사형 어미를 살피는 것은 분명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은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논의도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서의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예가 있는 것은 물론,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술어는 비교적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고는 가능세계 개념이 보다 명확한 술어로 이들 대립을 기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가 보이는 대립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를 서법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자 할 때, 서법이라는 개념어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서법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양상이라는 개념 범주가 문법화된 문법 범주로서 서법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양상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서법을 이해하거나 양상이라는 범주와 관련 없이 문장 종결법을 서법이라고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 등 서법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법이라는 개념어가 무엇까지 포괄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천착하지는 않도록 한다. 본고의 목적이 가능세계의미론에서의 서법에 대한 논의가 한국어의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만 있기 때문이다. 가능세계의미론에서 서법은 양상이 문법화된 문법 범주로 설명되는데, 본고에서는 우선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는 것 정도만을 밝혀 두도록 한다. 단,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까지를 서법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과 ‘-기’를 현실성 위상 범주 요소로서 다루었던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가능세계의미론에서의 서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3.1.에서는 우리가 논의할 서법이란 무엇인지, 3.2.에서는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이 어떻게 설명되어 왔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여러 설명 방법을 확인하고, 한국어 명사형 어미의 선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정리된 논의를 바탕으로 서법 요소로서의 명사형 어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미진한 점을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2. 현실성 위상 범주로서의 명사형 어미의 문제

여기서는 ‘-음’과 ‘-기’를 현실성 위상을 나타내는 요소로 처리한 논의의 문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고에서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설명하려고 한 것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당 관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⁶

최근 연구에서는 양상 또는 서법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에서 많이 이야기되어 온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⁷ Mithun (1995, p. 368)에 따르면 현실은 ‘사건이 실현

6 물론, 서론에서 이야기했듯 모든 논의가 명사형 어미를 현실성 위상을 나타내는 범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 ‘기정성’이나 ‘결정성’ 혹은 ‘존재’와 같은 술어들로 명사형 어미의 의미 차이를 설명한 논의들도 상당히 많이 확인된다. 현실성 위상 범주에 대한 논의가 적용되기 전에는 명사형 어미가 나타내는 의미가 속하는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범주가 아닌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술어만을 찾아 명사형 어미의 구체적인 의미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상 혹은 서법 범주로서의 현실성 위상 범주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에 소개되면서, 명사형 어미의 의미로 설명되어 왔던 것들을 포괄해 범주를 부여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 술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며, 명사형 어미를 현실성 위상을 나타내는 범주로 처리했을 때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많은 논의들이 따르고 있는 시각인 현실성 위상 범주 요소로서의 명사형 어미의 문제만 살피도록 할 것이다. 그 외 명사형 어미의 의미에 관해서는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국어학회, pp. 83-104; 채완(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pp. 95-108;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기능」, 『언어』 5(1), 한국언어학회, pp. 79-102;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홍종선(1983),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pp. 241-272;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김일환(2005), 「명사형 어미의 의미 재고」, 『형태론』 7(2), pp. 351-36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임동훈(2008); 박재연(2009),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

되거나, 일어난 적이 있거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비현실은 '화자가 묘사하는 행위나 상태를 온전히 사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정도로 정리된다.

'-음'과 '-기'가 쓰인 문장을 보면 직관적으로 각각 현실과 비현실을 나타낸다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아래 (2)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 물론 진우가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지.

나.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2가)의 '진우가 노력하고 있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묘사한다고 볼 만하다. (2나)의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는 앞으로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다. 비현실로 볼 만하다는 것이다.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과 비현실의 판단은 화자의 것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양상 논의에서는 Lyons (1977, p. 452)의 양상 정의, 즉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라는 정의를 따라 양상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 -기'의 대립, 즉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은 양상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된다.⁸ 앞서 살펴보았듯, (2)의 예에서는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현실에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 데 '-음'이, 현실에 있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는 데 '-기'가 선택되었다고 볼 만하다. 명사형 어미에 대한 기존의 설명이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학』 43, 한국어학회, pp. 151-177; 손혜옥(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

8 박재연(2009), p. 168에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나타내는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을 바탕으로 현실성 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현실성 역시 명제 자체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전제되는 범주라고 보았다.

그러나 (3)과 같은 예에서는 과연 화자가 현실 혹은 비현실로 판단하여 ‘-음’과 ‘-기’가 선택된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듯하다.

(3) 가. 대상을 받게 되었음을 상상해 봐.

나. 다들 민회 힘든 걸 아는데도 민회는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더라.

(3가)의 ‘대상을 받게 되었음’은 현실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상상하다’라는 술어가 쓰인 것으로 보아 현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민회)이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기’가 화자의 판단에 따라 비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인지 의심된다. 앞서 ‘다들 민회 힘든 걸 아는데도’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3나)의 화자는 사람들이 민회가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기’가 결합한 보절이 화자의 판단에 따라 비현실로 처리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명사형 어미가 쓰인 예를 보면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명사형 어미가 선택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모절 주어 혹은 모절 서술어와 관련해 명사형 어미의 선택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가령 (3가)의 경우 ‘대상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히 현실의 사건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마치 현실처럼 생각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임시적으로 현실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또한 (3나) 역시 화자의 태도가 바탕이 되어 비현실이라고 설명되기보다는 ‘민회’라는 모절 주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할 때 비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처럼 보절에서의 명사형 어미의 대립에는 화자의 태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소가 포함된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맥락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이 양상 요소가 포함된 문장의 통사를 바탕으로 합성적인 의미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면,⁹

9 양정석(2020), 「‘답다’의 양상 의미와 그 통사의미적 합성」, 『한글』 81(1), 한글학회, p. 85.

이와 같은 맥락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문장의 다른 요소 혹은 맥락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그렇다면 가능세계의미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명사형 어미가 어떻게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3. 가능세계의미론에서의 서법

3.1. 서법의 개념

여기서는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서법이란 무엇인지 정리하도록 한다. 이는 ‘-음’과 ‘-기’의 대립을 가능세계의미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가능세계의미론에서 양상은 문법(grammar)이 실제일 필요 없는 상황에 기반하여 말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가하는 언어적 현상 정도로 정리된다.¹⁰ 양상은 실제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세계의미론을 바탕으로 발전한 바 있다. 양상 의미의 핵심은 주어진 명제가 어떤 관점에서서의 가능성(possibility) 혹은 필연성(necessity)을 나타내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는, 어떤 가능세계를 바탕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한정해 주는 것이다.^{11, 12}

10 P. Portner (2009),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p. 1.

11 본고에서는 양상의 구체적인 설명 방식이나 적절한 양상의 분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가능세계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는 것이 서법 범주에 대한 설명에도 유용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상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A. Kratzer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pp. 337-355; A. Kratzer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ed. by H. J. Eikmeyer and H. Rieser), Berlin: de Gruyter, pp. 38-74에 제

그런데 가능세계를 바탕으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가능세계를 고려할 수는 없다. 가능세계의 집합을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식 양상(epistemic modality)의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가능세계의 집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 참인 가능세계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된다. 아래 (4)는 인식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을 수 있-’ 구성과 인식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어야 하-’ 구성의 예를 든 것이다.

(4) 가. 지금쯤이면 재희가 집에 도착했을 수 있다.

나. 지금쯤이면 재희가 집에 도착했어야 한다.

(4가)에 제시된 ‘-을 수 있-’ 구성은 인식적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때 이 구성이 인식 양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화자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참인 가능세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쯤이면 재희가 집에 도착한 가능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인식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4나)의 경우 화자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참인 가능세계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가능세계에서 지금쯤이면 재희가 집에 도착했을 것임을 나타낸다. 이들을 풀어 설명하면 아래 (5)와 같다.

(5) 가. 화자가 아는 바가 참인 가능세계 중 지금쯤이면 재희가 집에 도착했을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나. 화자가 아는 바가 참인 모든 가능세계에서 지금쯤이면 재희가 집에 도착했다.

시된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세계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략하게 전하고자 한다.

- 12 이러한 양상의 정의를 한국어의 양상 요소들 전반에 적용한 논의는 양정석(2016), 「한국어 양상 표현의 통사·의미 분석」, 『언어와 정보』 20(2), 한국언어정보학회, pp. 57-92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인식과 같이 고려해야 할 가능세계를 한정해 주는 근거를 접근 가능관계(accessibility relation)라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접근가능관계에는 화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 외부의 규칙 등에 의해 부과되는 당위(deontic)의 접근가능관계를 들 수 있다. 물론 논의에 따라 접근가능관계와 양상의 구체적인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서법은 이와 같은 양상 의미가 문법화된 것으로 설명된다. 즉, 어떤 가능세계를 바탕으로 서법이 결합한 명제를 해석할지가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문법 범주를 서법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양상과 서법을 개념적인 범주와 문법적인 범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범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따르면 인식 양상 의미를 나타내는 '-겠-'과 같은 요소들을 서법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상은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양상과 문장 하위층위(subsentential)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양상으로 나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4)의 예는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양상이므로 문장 층위(sentential)의 양상이지만, 모든 양상 의미가 문장 전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6)은 문장 층위의 양상과 문장 하위층위의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어의 예를, (7)은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6) 가. John must pay this bill.

나. John believes that he can fly.

(7) 가. 존은 계산을 해야 한다.

나. 존은 자신이 날 수 있다고 믿는다.

(6가)와 (7가)는 문장 전체 층위에 걸린 양상으로서, John이 계산을 해야 한다는 당위 양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6나)와 (7나)에서는 'believe', '믿다'라는 동사가 가진 양상 의미 때문에 보절의 명제가 John의 인식으로 접근가능한 가능세계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이때 보절의 명제는 문장 전체의

양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장 하위층위의 양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문장 하위층위의 양상으로서, 그중에서도 이것이 서술어의 굴절이라는 형식적 범주로 나타나는 경우다. 전통적으로 이는 직설법과 가정법의 선택으로 이야기되어 왔는데, 이들은 동사에 표지된다는 점에서 동사 서법(verbal mood)으로 불려 왔다. Portner (2018, p. 78)에 따르면, 동사 서법에 대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모절 술어 해석의 양상 매개변수(parameter)에 따라 서법이 결정된다고 보았다.¹³ 모절 술어가 나타내는 접근가능관계를 바탕으로 보절의 동사 서법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때 보절과 보절의 양상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는 근문(root clause)과 그것이 쓰인 대화적 맥락(conversational context)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 문장 하위층위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 근문과 대화적 맥락 사이의 관계를 보절과 보절의 양상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게 보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법을 화행과 연관시켜 온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¹⁴ 근문이 대화적 맥락에서 하는 역할을 보절의 동사 서법과 연관시키면서 문장 서법과 동사 서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종결어미를 서법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있어 왔는데,¹⁵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의 서법에 대한 이해가 이들 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

13 여기서 양상 매개변수란 접근가능관계를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양상 효력(force) 등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에 이 정도로만 언급해 두도록 한다.

14 ‘-음, -기’를 서법에 포함시키려는 임동훈(2008) 역시 화행과 밀접하다는 서법의 전통적인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서법의 설명을 채택한 Portner (2018)에서도 서법과 화행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15 민경모(2010), 「서법 구현 형식에 대한 일고찰: 서법 범주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 421-422.

리라 기대된다.¹⁶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을 설명하고자 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보절에서의 직설법은 근문의 단언(assertion)과 유사하고, 가정법은 비단언(non-assertion)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보절의 서법과 근문의 서법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언과 비단언의 구분은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을 설명하는 데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 역시 크게 볼 때 직설법과 가정법 체계와 비슷하므로 각각이 단언과 비단언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¹⁷

본고에서는 가능세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서법을 설명할 때 단언과 비단언의 구분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화자가 현실로 생각한다고 단언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언은 가능세계 개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더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대화를 끊임없는 맥락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화를 통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 집합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이때 가능세계의 개념을 고려하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대화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능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어떤 화자의 단언은 상정되어 있는 가능세계의 집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가능세계가 해당 발화에 맞게 축소된다고 설명된다.¹⁸

이를 고려하면 직설법은 문장 하위층위에서 가능세계를 축소하는 단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가정법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

16 다만, 본고에서는 보절에서의 명사형 어미의 대립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문의 서법과의 연관성을 보일 만한 가능성을 일부 제시하기만 할 것이다. 이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7 임동훈(2008), p. 216.

18 R. C. Stalnaker (1999), *Context and Content*, Oxford University Press, pp. 86-87에서는 이때의 단언이 가능세계를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단언의 정의로 이해되기보다는 단언의 효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해 볼 수 있다.¹⁹ 동사 서법의 선택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아래에서는 양상과 서법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직설법과 가정법의 선택이 어떻게 설명되어 왔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앞서 제기되었던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명사형 어미 ‘-음’과 ‘-기’를 각각 직설법과 가정법을 나타내는 굴절 접사로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최형용(2013)에서는 교착어인 한국어의 어미가 유럽어 중심의 범주인 굴절 접사와는 형태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두 요소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논의를 펼친다. 여러 기능들이 중첩되어 형태가 결정되는 유럽어의 굴절 범주가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설명하는 데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규환·김민국·정한테로(2014, pp. 248-251)는 ‘굴절’이라는 용어는 여러 문법 범주가 중첩되어 표시되는, 단어형이 변화하는 방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시제, 상, 서법, 격, 수, 성’ 등의 의미기능적인 굴절 범주의 형성으로 넓게 이해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굴절 개념의 이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본고는 이를 고려하여 명사형 어미 ‘-음’과 ‘-기’ 역시 굴절 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의 대립과 직설법, 가정법 대립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직설법과 가정법을 ‘서법’이라는 의미기능적인 굴절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유럽어의 직설법과 가정법 어미에 서법이라는 기능 외에 격, 수, 인칭 등의 기능이 중첩되어

19 여기서는 가정법이 수행하는 기능이 다소 소극적으로 정의되는 것 같으나, 구체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면 소극적인 정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단언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되는 직설법과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소극적인 정의로 이야기한 것이다.

나타난다는 것보다는 이들이 서법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의 굴절 범주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직설법과 가정법에 형태적으로는 다른 문법 범주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을 다루는 논의들에서는 그 의미기능을 다른 문법 범주들과 중첩하여 설명하지는 않는다. 격, 수, 인칭 등의 범주는 주어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형태가 일치되는 것으로 직설법이나 가정법과 같은 서법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미기능적인 범주로서의 직설법과 가정법에 대해 살필 것이다.

한편, 가능세계를 도입해 서법을 설명하려는 접근을 바탕으로 하면 근문에 표지되는 관련 개념도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직설법과 가정법은 단언과 비단언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이는 단언과 비단언의 특성을 가지는 근문과의 연관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본고에서는 근문에 나타나는 여러 서법(명령법, 기원법)의 형태 모두를 세밀하게 나누어 고찰하지는 않겠지만, 단언과 비단언이라는 큰 구분이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2.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에 대한 논의 검토

여기서는 직설법과 가정법의 설명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어떤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의 대립에 대해 살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앞서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이 근문의 단언과 비단언의 대립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마다 차이가 있다. 단언과 비단언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논의들을 살피고, 해당 논의가 한국어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설명하

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선택되지 않은 설명이 해결하기 어려운 예들을 간단하게 제시할 것이다.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에는 Farkas (1992, 2003)이나 Giorgi and Pianesi (1997)을 들 수 있다. 이 논의들은 동적 의미론(dynamic semantics)을 중심으로 보절이 맥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직설법 혹은 가정법이 선택된다고 보았다.²⁰ 이는 맥락을 변화시키는 힘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동적의미론에서 이 힘은 곧 문장의 의미로 처리된다. 가령, ‘비가 온다’라는 근문은 단언으로서 기존의 맥락에 비가 오는 세계들의 집합이 함께 고려되도록 맥락을 변화시킨다고 설명된다. 기존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던 가능세계들 중 비가 오는 세계들만이 맥락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Farkas (2003)의 설명에 따르면, 직설법은 해당 보절이 단언과 유사하게 맥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선택된다. 마치 근문이 맥락에 더해지듯, 직설법을 선택한 보절이 나타내는 명제가 모절 술어가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세계들을 축소하는 것이다. 아래 (8)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가. 지원이는 아침에 빛나가 아팠음을 떠올렸다.

나. *지원이는 아침에 빛나가 아팠기를 떠올렸다.

(8)의 ‘떠올리다’가 취하는 보절 ‘아침에 빛나가 아팠다’라는 것은 믿음의 주체인 지원이의 인식적 접근가능세계들에서 단언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지원이의 인식적 접근가능세계에서 아침에 빛나가 아팠던 가능세계들만을 선택하도록 지원이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떠올리다’

20 이들 논의에서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맥락 변화 잠재력(Context Change Potential, CCP)이라 일컬어진다.

와 같은 인식, 혹은 믿음을 나타내는 서술어들은 이와 같이 단언과 유사한 맥락 변화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을 선택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소망 술어와 같이 가정법을 선택하는 서술어들의 경우, 단언과 유사하지 않고 평가적 맥락 변화(evaluative context change)를 일으킨다고 설명된다.²¹ 소망 술어의 경우 보절은 모절 주체의 소망의 접근가능세계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이때 모절 술어의 주체는 직설법을 선택할 때와 같이 모절 주체의 소망의 접근가능세계들 중 보절의 내용이 참인 가능세계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모절 주체의 소망의 접근가능세계들이 평가된다고 설명된다. 아래 (9)의 예를 보자.

(9) 가. 은정이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나. ??은정이는 이번 시험에 합격함을 바란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9가)에서 은정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한 가능세계는 그러지 못한 가능세계에 비해 더 바람직한 세계가 된다. 두 세계를 비교했을 때 은정이가 선호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법이 단순히 보절 명제가 참인 가능세계들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보절 명제가 거짓인 가능세계들과의 비교를 포함하는 경우 선택됨을 보여 준다.^{22, 23}

21 P. Portner (2018), p. 105.

22 I. Heim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nd the Semantics of Attitude Verbs," *Journal of Semantics* 9, pp. 193-195에서도 'want'와 같은 소망 동사의 예를 들며 가능세계 간의 비교를 숨겨진 조건처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9가)와 같은 예는 '은정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은정이는 시험에 불합격한 것보다 바람직한 세계에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E. Villalta (2008), "Mood and Gradability: An Investigation of the Subjunctive Mood in Spanish," *Linguist and Philos* 31, p. 472 참고].

23 이상의 설명은 보절의 서법과 근문의 서법 사이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평서(declarative)의 힘을 가진 근문의 경우 단언적 효과를 가지고, 명령(imperative)의 힘을 가진 근문의 경우 평가적 맥락 변화 효과를

다만, 보절이 사실이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사실 감정 술어’(factive-emotives)들의 경우 비교의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직설법을 택하도록 발달한 언어들도 있다.²⁴ Farkas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결정성’(decideness)이라는 추가적인 변수를 설정한다.²⁵ 이는 직설법이 사실을 전제한다는 직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에 따라 어떤 변수를 우선으로 할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된다.²⁶

이들 설명은 직설법과 가정법의 대립을 배타적인 것으로 본다. 직설법과 가정법은 위에 설정된 두 가지의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 어떤 변수를 우선시할 것인가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언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서술어의 경우 직설법과 가정법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다. 가령, 한국어의 사실 감정 술어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실 감정 술어들은 아래 (10), (11)과 같이 ‘-음’과 ‘-기’ 모두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가. 치영이는 준호가 합격했음에 기뻐했다.

나. 치영이는 준호가 합격했기에 기뻐했다.

(11) 가.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음에 슬퍼했다.

나.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기에 슬퍼했다.

가진다고 설명할 만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이겠지만, 한국어 보절의 명사형 어미도 근문의 서법과의 유사성이 드러나는 예가 있다.

24 D. Farkas (2003), “Assertion, Belief, and Mood Choice,”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modality, Vienna, p. 2.

25 A. Giorgi and F. Pianesi (1997), *Tense and Aspect: From Semantics to Morpho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실성(veridicality)을 설정하고 있다.

26 루마니아어의 경우 사실 감정 술어들이 비교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보다 결정성을 나타낸다는 점이 앞서 적용되어 보절의 서법으로 직설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앞선 설명에 따른다면 (10)이나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뻐하다’나 ‘슬퍼하다’와 같은 서술어가 두 어미 모두를 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때에 따라 결정성을 우선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사실 감정 술어들은 어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개 비교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만하다. 보절 명제가 거짓인 세계와 비교하여 참인 세계가 해당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10)에서는 준호가 합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치영이에게 더 바람직한 세계라고 판단되고, (11)에서는 휴가를 갈 수 있는 세계가 없는 세계보다 동생에게 더 바람직한 세계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서술어는 보절이 사실이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야 해당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이들이 두 서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도, 왜 어떤 맥락에서는 어느 하나만이 선택되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법의 선택이 접근가능세계들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이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예도 있다. 아래 (12)에 제시된 예가 그러하다.

(12) 가. 어느날부터 고양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췄다.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상태 변화 동사들은 보절에 ‘-기’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때 ‘-기’가 결합한 명제가 ‘시작하다’ 혹은 ‘멈추다’로 인해 도입된 바람직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적인 세계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순한 상태 변화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사형 어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동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논의로는 Quer (2001)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모절 서술어가 해석되는 환경과 모절 서술어가 도입하는 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법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Quer (2001)에서는 이른바 ‘모델 변화’(model shift)를 바탕으로 직설법과 가정법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의 모델은 접근가능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처리된다.²⁷ 이에 따르면 보절의 모델과 모절 서술어의 모델이 서로 일치하면 직설법이 선택되고 서로 다르다면, 즉 모델이 변화한다면 가정법이 선택된다. (13)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13) 가. 해정이는 두회가 돌아올 것임을 믿는다.

나. 지수는 재회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13가)에서는 ‘-음’이 선택되었다. 이때 ‘믿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의 믿음의 세계를 바탕으로 보절이 해석되어야 함을 알려 준다. 따라서 보절은 주체인 해정이의 믿음, 즉 해정이의 인식 세계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보절의 모델이 모절 주어의 인식 모델임을 알려 준다. 그런데 전체 문장은 보통 화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화자의 인식 세계에서 그러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13가)와 같은 발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3가) 전체는 화자의 인식 모델을 바탕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델의 주체는 ‘믿는다’의 주어나 화자나와 같이 달라지지만 모델 자체는 인식 모델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모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음’이 선택되었다고 설명된다.

(13나)의 경우는 다르다. ‘바라다’라는 서술어에 의해 보절은 모절 주어인 지수의 소망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체 문장은 (13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인식 세계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이때 보절과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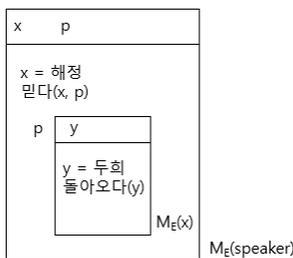
27 모델 $M(x)$ 는 개체 x 와 관련된 세계의 집합으로 정의된다[A. Giannakidou (1998), *Polarity Sensitivity as (Non)Veridical Dependenc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 31].

절은 각각 소망 모델, 인식 모델로 해석 과정에서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 즉 여기서는 ‘-기’가 선택된 것이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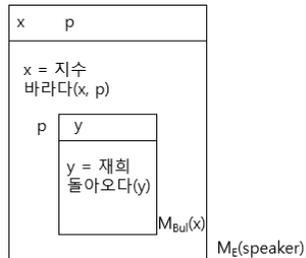
Quer (2001)의 관점은 결정성과 같은 다른 기준을 들여 와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어휘들이 가진 의미 특성이나 맥락의 특성을 기준으로 서법의 선택을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감정 술어의 서법 선택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Quer (2001, pp. 106-108)에서는 직설법과 가정법 모두를 택할 수 있는 사실 감정 술어는 보절 명제가 사실임이 전제되는지, 전제되지 않는지에 따라 서법이 선택된다고 설명한다. 보절의 내용이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전제되면, 공통 배경(common ground)에 속하게 된다.²⁹ 그리고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은 화자의 인식 모델을 바탕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공통 배경과 화자의 인식 모델이라는 해석 모델의 차이로 인해 가정법이 선택된다.³⁰ 반면, 직설법은 단언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므로 보절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고 단언될 때 선택된다.

28 J. Quer (2001), “Interpreting Mood,” *Probus* 13에서는 담화 표상 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DRS)를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13)과 관련된 담화 표상 구조는 아래 (13')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Quer (2001), p. 88 참고]. 아래에서 $M_E(x)$ 는 x의 인식 모델을, $M_{Bul}(x)$ 는 x의 소망 모델을 가리킨다.

(13') 가.



나.



29 이는 전제가 화자와 청자가 대화 상황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 배경에 속한다는 R. C. Stalnaker (1974), “Pragmatic Presuppositions,” *Semantics and Philosophy* (ed. by M. K. Munitz and P. Unger), Dordrecht: Reidel, p. 200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30 J. Quer (2001), p. 100.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앞선 맥락에서 보절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주어지면 해당 내용은 전제된 것으로, 단언될 수 없기 때문에 보절은 가정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 (14)와 (15) 같은 예를 보면 이미 전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절이 문제 없이 ‘-음’을 선택하고, ‘-기’가 선택되는 경우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14) 가. 어제 준호가 전화해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치영이는 준호가 합격했음에 기뻐했다.

나. 어제 준호가 전화해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렸다.^{??}치영이는 준호가 합격했기에 기뻐했다.

(15) 가. 부대 사정으로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었다.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음에 슬퍼했다.

나. 부대 사정으로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었다.^{??}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기에 슬퍼했다.

앞선 설명들은 직설법과 가정법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기에 사실 감정 술어들이 쓰인 예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듯하다. 두 서법을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 서법이 모두 쓰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변수를 마련하게 되었으나, 이는 사실성이라는 비교적 직관적인 기준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설법과 가정법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서술어가 확인되듯이, 이들 서법을 배타적인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두 서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서술어들이 있다면, 이들이 보이는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직설법과 가정법 각각의 선택을 이끄는 조건이 있되,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맥락과 같은 화용적인 특성이 추가적으로 서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Gordard (2012)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택한 대표적인 논의이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직설법과 가정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맥락에서의 이들의 쓰임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는 Godard (2012)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어 명사형 어미의 선택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서법 요소로서의 명사형 어미

여기서는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보절에서의 한국어 명사형 어미의 대립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3.2.에서 밝혔듯 이는 Godard (2012)의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Godard (2012)의 접근은 앞서 살펴보았던 Farkas (1992, 2003)의 접근과 유사하다. 다만, 의미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화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직설법과 가정법을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³¹ 이 논의에서 제시된 직설법과 가정법의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16), (17)과 같다.

(16) 직설법 선택의 조건(한국어의 '-음'의 경우)

직설법은 어떤 주체(agent)가 참임을 보장하는(is committed) 보절 명제가 모절에 결합한 경우 선택된다.³²

31 D. Godard (2012), "Indicative and Subjunctive Mood in Complement Clauses: From Formal Semantics to Grammar Writing,"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9, p. 130.

32 D. Godard (2012), pp. 134-135에서는 모절과 보절에 기술된 두 상황이 시제(tense)로 인해 겹쳤을 때(overlap)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어에서 'decide', 'anticipate', 'promise'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직설법을 선택하기에 추가된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동사들은 과거의 일에 대해 기술할 때 보절에 직설법을 취한다. 미래에

(17) 가정법 선택의 조건(한국어의 '-기'의 경우)

가정법은 보절 명제가 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어떤 주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화자가 고려할 경우 선택된다.

(16)은 직설법을 선택하는 서술어들이 근문의 단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때 '주체'의 경우 때에 따라 모절 서술어의 주어가 될 수도, 화자가 될 수도, 혹은 맥락에 따라 주어진 주체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직설법이 단순히 단언적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화용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능세계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 직설법의 선택은 맥락에 따라 주어진 접근가능세계들 중 해당 주체가 참임을 보장하는 가능세계들을 선택해 맥락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겠다.

(17)에 제시된 가정법 선택의 조건을 보면 다른 논의(Farkas 1992, 2003, Villalta 2008 등)와 같이 보절 명제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의 비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³ 다만, 다른 논의들이 모절 서술어가 도입하는 비교의 맥락만으로 고려한 것과 달리 화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화용적인 조건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다른 논의들이 선호의 관계나 우선순위와 같은 용어를 활용해 가정법의 선택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보절 명제가 참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는 맥락일 경우 가정법이 선택된다고 설명한다. 어떤 명제가 참이 아닌 가능세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정

대한 명제의 경우 참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D. Godard (2012), p. 136]. 그러나 한국어에서 이들에 해당하는 '결정하다', '기대하다', '약속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음'이 아닌 '-기'를 취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이들 동사들은 의미상 비교를 포함하기에 '-기'를 취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Villalta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계들 간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둔 비교이다. 그러나 Godard (2012)의 경우 이러한 비교를 단순화하여 보절 명제가 참인 경우와 참이 아닌 경우의 비교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고의 관심은 비교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화된 비교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법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망 동사나 지시 동사들의 보절에 가정법이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서술어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던 상태 변화 동사들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데, 아래에서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16)과 (17)의 조건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둘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만하며, 이때 직설법과 가정법의 선택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점이 찍히는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3.2.에서 검토했던 접근법들과는 다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한국어 예를 살펴며 해당 예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현실성 위상 범주 요소로서의 설명에 한계가 있음을 보였던 서론과 2장의 (1)과 (3)의 예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자. 이들은 아래 (18), (19)와 같이 다시 제시할 수 있다.

(18) 가. 지수는 외계인이 존재함을 믿는다.

나.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아까 보니 너 밥 같이 먹기 싫어하더라.

(19) 가. 대상을 받게 되었음을 상상해 봐.

나. 다들 민회 힘든 걸 아는데도 민회는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더라.

(18)가는 모절 주어인 지수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명제가 참임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지수의 믿음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참임을 보장하는 주어는 화자가 아니라 지수로, 화자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현실로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음’이 선택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는 지수의 믿음 세계 중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인 세계로 맥락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그런데 (19가)는 (16)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19가)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청자가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직 현실이 아니라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발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19가)는 어떤 주체도 보절의 명제가 참임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가능세계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19가)는 청자의 믿음 세계 중 청자가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참인 세계로 맥락을 축소하도록 하는 발화라는 것이다. 실제로 (19가)와 같은 발화는 대상을 받게 된 상황을 가정된 후의 이야기가 뒤이어 등장하게 되는 맥락에서 많이 쓰인다. 이는 (19가)와 같은 발화를 통해 맥락을 축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능세계 개념이 명사형 어미의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18나)의 경우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모절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보절 명제가 참이 아닌 가능세계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기’가 선택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8나)의 ‘싫어하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능세계들 간의 비교를 동반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기’가 선택된 것이다. 청자에게 있어 조금 전의 식사 자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라는 점에서 불편하지 않은 식사 자리가 있는 바람직한 세계와 비교된다.

(19나)는 화자가 민희가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했으므로 ‘-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예에서는 민희가 힘들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가능세계와 그렇지 않은 가능세계가 모두 고려되고 있으므로 ‘-기’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꼭 비교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절 명제가 참이 아닐 가능성이 고려된다면 가정법, 즉 ‘-기’가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몇몇 예를 더 확인해 보자. 아래 (20), (21)은 각각 인식 술어, 단언 술어로 불리는 동사들로서, 전형적으로 ‘-음’을 취하는 동사들이 쓰인 예이다.

(20) 가. 선혁이는 준수가 범인이 아님을 확신했다.

나. 두희는 승준이가 어제 일찍 집에 갔음을 안다.

(21) 가. 선생님이 오늘은 과제 제출일임을 공지해주셨다.

나. 승훈이는 항상 자신이 재미있는 일을 겪었음을 말해준다.

(20가)는 선혁이가 준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보절 명제가 참임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선혁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바탕으로 하면 준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제는 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선혁이가 알고 있는 세계 중 준수가 범인이 아닌 것이 참인 세계로 맥락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20나)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승준이가 어제 일찍 집에 갔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모절 주어인 두희가 보장할 것이다. 단, 이는 두희의 믿음 세계를 바탕으로 할 때 그러하다. 물론 ‘알다’가 대표적인 전제 유발 표현(presupposition trigger)임을 생각해 보면 화자도 보절 명제가 참임을 보장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21가)는 오늘은 과제 제출일이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장하는 것은 모절 주어인 선생님, (21나)는 항상 자신이 재미있는 일을 겪었다는 명제가 참임을 보장하는 것은 승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6)에 제시된 직설법 선택의 조건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과 (21)의 예들은 모절 주어가 보절 명제가 참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절 주어의 믿음의 세계 혹은 인식 세계에서 참인 명제들이기 때문에 직설법 요소인 ‘-음’을 취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모절 주어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절의 반대 명제, 즉 보절의 내용이 거짓인 가능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17)에 제시된 가정법 선택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직설법 선택 조건을 만족하고 가정법 선택 조건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음’이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망 동사나 지시 동사는 가정법, 즉 ‘-기’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동사

이다. 한국어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이를 살피기 위해 (22)와 (23)의 예를 제시한다.

(22) 가. 주은이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 동운이는 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희망한다.

(23) 가. 정부는 국회에게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를 요청했다.

나. 아버지는 동생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를 시켰다.

(22가)에서는 주은이라는 모절 주어의 소망의 세계들을 바탕으로 할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해 바람직한 세계일 것이다. (22나) 역시 동운이의 소망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면,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비해 바람직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예의 모절 주어들은 보절의 명제를 원하면서 해당 상황이 실현되지 않은 명제와 비교를 했을 것이다. (17)에 주어진 가정법 선택의 조건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화자는 이들 주어가 보절의 명제가 거짓인 가능세계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3)에 제시된 예도 보절의 내용이 실현된 것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혹은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예는 모절 주어가 보절 명제가 참임을 믿는다거나 이를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16)에 제시된 직설법 선택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 화자라든가 맥락상 주어진 다른 주체가 해당 명제의 참을 믿거나 단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단순히 보절 명제가 거짓인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보다는 보절 명제가 참인 가능세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고려하면 가정법 선택 조건을 만족하고 직설법 선택 조건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기’가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기’가 선택될 때 보절 명제가 참이 아닌 세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해서 김일환(2005)의 ‘-기’가 사용된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

을 살펴볼 만하다. (24)의 관용 표현들에 대해 김일환(2005, p. 362)는 (25)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24) 가. 내용이 불비하고 허술하기가 그지없고 또 치우친 것도 있으니
나. 대미 로비 하나만 두고 보아도 참으로 영성하기 짝이 없다.

[김일환(2005), p. 361]

(25) 가. 내용이 불비하고 허술하기가 (다른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지없고 또 치우친 것도 있으니

나. 대미 로비 하나만 두고 보아도 참으로 영성하기 (다른 것과 비교할
만한) 짝이 없다.

[김일환(2005), p. 362]

(24)와 같은 예의 ‘-기 그지없다’나 ‘-기 짝이 없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지기 이전에 (25)과 같은 구성이었을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25)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흥미롭다. 이는 보절 명제가 참이 아닌 가능세계를 함께 고려할 때 ‘-기’가 선택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능세계 간의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는 해당 명제가 참인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태가 변화함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보절에 ‘-기’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6)은 그 대표적 예를 보인 것이다.

(26) 가. 원준이는 울기 시작했다.

나. 채민이는 밥 짓기를 멈췄다.

(26가)와 (26나)가 각각 우는 것이 참인 세계와 밥 짓는 것이 참인 세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다른 접근법들과 같이 가정법이 비교의 맥락, 즉 가능세계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는 것으로만 설명하면 (26)과 같은 상태 변화 동사들의 경우를 포착하기 어렵다.

그러나 (17)에 제시된 가정법 선택의 조건은 보절 명제가 참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기만 하는 정도로 범위를 넓힌 바 있다. (26)과 같은 상태 변화 동사들을 발화할 때에는 상태 변화 이전의 상태와 변화 후의 상태 모두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해, (26가)의 경우 옳지 않은 상태에서 우는 상태로의 변화를, (26나)는 밥을 짓는 상태에서 밥을 짓지 않는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절의 명제 내용과 그 반대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접근과는 달리 우리가 선택한 접근법에서는 상태 변화 동사들이 ‘-기’를 선택하는 것도 설명해 낼 수 있다.

한편 (16)과 (17)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음’과 ‘-기’를 모두 취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각각의 조건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므로 이들은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다른 명사형 어미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로는 사실 감정 술어가 쓰인 문장들을 수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10), (11)의 예를 아래 (27), (28)과 같이 다시 제시하여 살펴도록 한다.

(27) 가. 치영이는 준호가 합격했음에 기뻐했다.

나. 치영이는 준호가 합격했기에 기뻐했다.

(28) 가.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음에 슬퍼했다.

나.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기에 슬퍼했다.

직설법과 가정법의 선택 조건을 고려하면, ‘-음’이 선택된 (27가)와 (28가)는 어떤 주체가 보절이 참임을 보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주체는 두 예 모두에서 모절의 주어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가 선택된 (27나)와 (28나)는 보절의 명제가 거짓인 가능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7)과 (28)에 특정한 맥락을 부여하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듯하다. 이를 아래 (29), (30)과 같이 제시한다.

(29) 가. 치영이는 준호의 합격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치영이는 준호가 {합격했음/²합격했기}에 기뻐했다.

나. 준호가 불합격했다면 치영이는 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치영이는 준호가 {¹합격했음/합격했기}에 기뻐했다.

(30) 가. 그 사건으로 모두가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었다. 동생은 휴가를 갈 수 {없음/²없기}에 슬퍼했다.

나. 동생이 휴가를 갔다면 저렇게 우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생은 휴가를 갈 수 {¹없음/없기}에 슬퍼했다.

(29가)의 경우 ‘-기’가 결합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앞선 맥락에 준호가 합격 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준호가 합격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준호가 합격한 것이 참임을 믿고 발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가 아닌 ‘-음’이 결합하는 것이 선호된 것은 아닌가 한다.

(29나)는 선행 맥락에서 보절의 명제가 거짓인 가능세계를 고려함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가정법이 보절 명제가 거짓인 가능세계가 존재함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29나)의 후행문에 ‘-기’의 선택이 자연스러움을 설명할 수 있다. 이때에는 모절 술어인 ‘기뻐하다’의 의미 자체가 가능세계 간의 비교를 필요로 하고, 선행 맥락도 이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17)에 제시된 가정법의 선택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가) 역시 (29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가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29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맥락 안에서 참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화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가정법 선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음’이 선택된 것이다. (30나) 역시 동

생이 휴가를 간 것이 참인 가능세계를 고려하여 휴가를 갈 수 없는 것이 참인 가능세계와 비교를 하고 있으므로 ‘-기’가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절에서의 서법 선택을 근문의 서법과 연관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물론 한국어의 경우 보절에서의 술어의 형태와 근문에서의 술어의 형태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이기 어렵다. 하지만, 많이 지적되었듯이 ‘-음’과 ‘-기’가 보절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근문처럼 행동할 때 각각 평서문, 명령문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은 이러한 예들을 보여 주며, 이는 동사 서법과 근문 서법의 유사성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31) 가. (어머니가 남겨둔 메모) 냉장고에 배추 김치 있음.

나. (선생님이 칠판에 써 둔 내용)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하기.

(31가)는 냉장고에 배추 김치가 있다는 것을 단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냉장고에 배추 김치가 있는 세계로 맥락이 축소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31나)는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31나)는 선생님이 금요일에 보고서를 제출한 세계를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곧 해당 명제가 참인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를 모두 고려할 때 가능한 의미이다. 이는 (16)과 (17)에 제시된 ‘-음, -기’의 보절에서의 선택 조건과 동일하다.

여기까지 우리는 보절에서의 ‘-음’, ‘-기’의 선택을 일부 예들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능세계의미론적 논의가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의 대립과 관련된 논의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고는 보절에서 명사형 어미 ‘-음, -기’의 대립에 대한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음, -기’를 서법 요소로 보고, 기존에 유럽어를 대상으로 했던 서법의 대립에 대한 논의를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의 대립 논의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근 ‘-음’과 ‘-기’의 차이를 각각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성 위상 범주를 나타내는 요소로 설명하는 논의를 살피고 해당 설명의 한계를 살폈다. 그 결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양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의미는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설명하는 데 일관되게 적용되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명사형 어미의 대립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능세계의미론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특히 유럽어의 직설법과 가정법 선택을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으로 설명한 논의를 살펴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정리하면, 직설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음’은 어떤 주체가 참임을 보장하는 보절 명제가 모절에 결합한 경우 선택된다. 가정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는 화자가 보절이 거짓인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기존의 다른 접근들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예를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보절에서의 ‘-음, -기’의 기본적인 대립만을 다루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의 적용이 가능할지, 유용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기본적인 일부 예들만을 살핀 것이다. 그러나 명사형 어미에 결합하는 시제, 혹은 다른 의미적 요소들이 이들 기본적인 대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절, 인과절 등 ‘-음, -기’의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를 총망라하여 이들이 나타내는 서법 범주가 가능세계의미론적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에서 관련 논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환(2005), 「명사형 어미의 의미 재고」, 『형태론』 7(2), pp. 351-364.
- 민경모(2010), 「서법 구현 형식에 대한 일고찰: 서법 범주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 417-451.
- 박재연(2009),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pp. 151-177.
- 손혜옥(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기능」, 『언어』 5(1), 한국언어학회, pp. 79-102.
- 양정석(2020), 「'답다'의 양상 의미와 그 통사의미적 합성」, 『한글』 81(1), 한글학회, pp. 83-113.
- 양정석(2016), 「한국어 양상 표현의 통사·의미 분석」, 『언어와 정보』 20(2), 한국언어정보학회, pp. 57-92.
- 오규환·김민국·정한데로(2014), 「한국어 형태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 최형용(2013)을 중심으로」, 『형태론』 16(2), pp. 241-281.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한국어학회, pp. 323-359.
- 임동훈(2009),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pp. 55-81.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pp. 211-249.
-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한국어학회, pp. 83-104.
-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pp. 191-205.
- 채완(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한국어학회, pp. 95-108.
-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홍중선(1983),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pp. 241-272.
- Farkas, D. (2003), "Assertion, Belief, and Mood Choice,"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modality, Vienna.
- Farkas, D. (1992), "On the Semantics of Subjunctive Complements," *Romance Languages and Modern Linguistic Theory: Papers from the 20th Linguistic Symposium on Romance Languages* (ed. by P. Hirschbühler and K. Koerne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p. 69-103.

- Giannakidou, A. (1998), *Polarity Sensitivity as (Non)Veridical Dependenc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orgi, A. and F. Pianesi (1997), *Tense and Aspect: From Semantics to Morpho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ard, D. (2012), "Indicative and Subjunctive Mood in Complement Clauses: From Formal Semantics to Grammar Writing,"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9*, pp. 129-148.
- Heim, I.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nd the Semantics of Attitude Verbs," *Journal of Semantics 9*, pp. 183-221.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ed. by H. J. Eikmeyer and H. Rieser), Berlin: de Gruyter, pp. 38-74.
- Kratzer, 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pp. 337-355.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thun, M. (1995), "The Relativity of Irreality,"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ed. by J. L. Bybee and S. Fleischman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p. 367-388.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ner, P. (2018), *Mood*, Oxford University Press.
- Portner, P. (2009),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Quer, J. (2001), "Interpreting Mood," *Probus 13*, pp. 81-111.
- Stalnaker, R. C. (1974), "Pragmatic Presuppositions," *Semantics and Philosophy* (ed. by M. K. Munitz and P. Unger), Dordrecht: Reidel, pp. 197-213.
- Stalnaker, R. C. (1999), *Context and Content*, Oxford University Press.
- Villalta, E. (2008), "Mood and Gradability: An Investigation of the Subjunctive Mood in Spanish," *Linguist and Philos 31*, pp. 467-522.

ABSTRACT

A Possible Worlds Semantic Approach to Nominal Endings as Mood

Hwang, Hyeondong*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nominal endings *-um* and *-ki* in complement clauses can be explained as mood marker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ssible worlds semantics. Recently, it has been said that nominal endings are treated as grammatical elements representing the reality status, so that *-um* is regarded as a realis marker and *-ki* as an irrealis marker.

Most of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modality a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proposition.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explain some sentences with nominal endings properly by this definition. As an approach that can resolve this issue, this paper tried to adopt a possible worlds semantics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possible worlds semantics, modality is defined as speaking based on or talking about situations that do not have to be real and mood can be understood as a grammaticalization of these modal meanings.

Mood in complement clauses can be divided into indicative and subjunctive, each of which has an assertive and non-assertive effect. An assertion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possible worlds given as a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xt to fit the utterance by adding new proposition. Based on this, the indicative and the subjunctive are explained as follows. Indicative is motivated in a complement clause if the combination of the head and complement clauses is such that the embedded clause expresses a proposition to the truth of which an agent is committed. Accordingly, the proposition of the corresponding clause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subsentential contexts. Subjunctive is motivated in a complement clause if the speaker considers the possibility that there may exist a possible world in which the proposition of the complement clause is false. There is no assertive effect.

Based on this approach, if the selection of *-um* and *-ki* corresponds to the indicative and subjunctive respectively, it can explain examples that were difficult to explain when viewed as a category of the reality status.

Keywords Nominal Endings, Mood, Indicative, Subjunctive, Reality Status, Possible Worlds Semantics

